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온라인 학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경기도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정선주*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녀의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어려움은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지원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학습 격차로 이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림장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잘 모르는 데 온라인수업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쉬운 or 쉽지 않은 과정’, ‘집집마다 차이가 나는 스마트 기기’, ‘집안 형편이 비칠까 신경 쓰이는 카메라 위치’, ‘쪽쪽 앞으로만 나가는 진도’, ‘아무리 온라인수업이라고 해도’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학습 약자로 남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코로나19, 온라인학습, 디지털 리터러시, 자녀 교육, 다문화가정, 학습 격차

1. 서론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팬데믹의 시작은 한국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전대미문의 사태에 사회, 경제, 문화는 요동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강요하고 강요받았고 학교도 그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급기야 전국의 모든 학교는 2020년 3월 개학이 3차례 연기된 후 400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교실에서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고 학원과 방과후교실에서 학교 밖 학습을 하던 평범한 학생들의 루틴이 깨지고 교사와 학생들이, 급우들이 '온라인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전대미문의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된 온라인수업은 교육 당국도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가 처음 겪는 과정의 연속들이었다.

이 온라인수업의 시작은 인적, 물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시작되었기에 수업 현장의 학교, 교사, 학생에게도 큰 부담이었지만 자녀를 온라인 수업에 등교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은 온라인수업=학부모 수업, 반(半) 유치원생들에게 학부모가 제2의 교사(정형수·양정호 2023)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업 준비와 진행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컸다.¹ 온라인수업에서 이렇게 지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이지만 모든 학부모에게 이것이 같은 무게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야기된 온라인수업은 일하는 엄마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 엄마들에게 어떻게 이를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한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본 연구자에게도 안면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움 요청 연락이 수시로 왔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학교에서 온 안내문이 무슨 말

1 언론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경기일보 2020.04.26; 연합뉴스 2020.10.09).

인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수업을 안 들어가 학교에서 선생님 전화가 오는데 이른 출근 때문에 늦잠 자는 아이를 온라인수업에 강제로라도 참여시킬 수가 없다고. 아빠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가족 중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온라인 학습은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눈뜬장님과 같은 출발이었다. e학습터에 회원 가입조차도 그들에게는 두드려야 하는 벽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온라인수업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녀들의 돌봄과 교육은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며 다문화가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² 즉,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 내에서 자녀 온라인수업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역할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새롭게 부여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낮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자녀의 온라인수업은 한국 생활 적응과 자녀 양육 및 교육과는 또 다르게 넘어야 할 산 넘어 산으로 다가왔을 것이다(중부일보 2021.01.16; KPI 2020.04.09). 본연구는 코로나19 기간에 초등 저학년 학생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온라인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많은 선행연구에 나타나듯이 낮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들의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온라인학습은 디지털 매체 접근이라는 새로운 어려움마저 더해 이들의 자녀 교육 어려움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50대 연령의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온라인수업 참여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였다.

2 2018년,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이 자녀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성별 분업에 약한 동의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114; 2022: 118).

2. 선행연구

한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윤명숙·이해경 2011; 정기선 2008).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되기도 전 임신과 출산을 통해 엄마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을 뜻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중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 차지한다. 결혼이주여성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은 낮지 않지만, 한국어 능력의 한계와 이주민이라는 심리적 위축으로 자녀 교육의 개입에 있어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었으며(김성숙 2012; 김유진·오성배 2013; 전홍주 외 2008)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적, 문화 차이, 문화 접변, 한국 사회의 편견 등은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연결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강선자·손수민 2011; 류진아 2011; 이현주 2013; 팜티훤짱 외 2014). 특히 서덕희(2015)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자녀 교육방식과 그 어려움의 차이가 6년이라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종단적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흥미롭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저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전적으로 한국의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하여 결과를 낳기가 어려운 반면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적합한 최대한의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중언어교육과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 초국적 진로 등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을 높게 갖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또 다른 한 축은 코로나19 이후 이루어진 온라인수업에 대한 연구이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미국의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기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4~5개월만큼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학업 격차는 취약계층 학생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Dorn et al. 2020).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이 202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8천 5백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

르면 교사의 약 79%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 사회 동향 2021(2022)와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일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해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가정 배경에 따라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수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학습 격차 확대와 교육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박미희 2020; 박진보 2020; 손지희 2020; 천보선 2020; 최혜영 2020). 특히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온라인수업 및 원격수업을 연구한 논문은 2편이 있다. 남호웅(2021)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대면 소통의 가능, 급식 제공, 원활한 학습 가능 등의 이유로 등교 수업을 선호하며 김강남(2021)은 코로나로 인해 이주배경 아동의 학습 상황이 학습 부진과 학력 격차, 자기주도학습의 부재, 학부모 역할의 부재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수업을 하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학교생활 적응 문제와 학습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RISS에 4천 편이 넘는 엄청난 양의 선행연구가 이를 증명해 준다.³ 그렇다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뒤처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코로나시대 온라인학습을 어떻게 진행하였을까?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많은 언론에서 뒤늦게 다문화가정 학생과 장애 학생 등에 대한 온라인학습 기사를 다루며 이들이 온라인 학습의 사각지대임을 보도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 교육체계 내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경기일보 2020.04.26; 연합뉴스 2020.10.09; EBS 뉴스 2020.04.17).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결

3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다문화가정 아동, 학교' 등의 단어로 검색 시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적응의 문제와 학습의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2024년 9월 1일 기준).

4 위 언론 기사의 내용은 교육부와 학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업을 맞은 다문화가정의 놓쳐지지 않은 현실을 다루고 있다.

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온라인수업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온라인수업의 과정과 내용, 온라인수업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의 온라인수업 고민과 지원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학습 약자였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부모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온라인학습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이 겪은 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한 개인이 가지는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이지만 특정한 배경과 조건 하에서 겪는 공통된 경험의 현상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질 수 있기에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논리와 경험이 아닌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상을 확인하고 현상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이 겪은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한다(강명선·양성은 2011: 235). 현상학적 연구는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는 연구'이며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이다. 초등 저학년을 둔 결혼이주여성으로 자녀의 온라인학습 경험을 통해 그들이 단순히 어떤 경험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자녀들의 온라인학습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 등을 통해 이런 경험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파악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적절성과 충분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 대상자의 눈으로 경험의 세계를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연구자의 선정은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원하는 한

NGO 단체의 활동가로 18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이주민과 함께하는 NGO 활동으로 알게 된 단체 중 연구에 협조적인 단체의 도움으로 초등 저학년을 둔 결혼이주여성 10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표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1~3학년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일 것, 둘째, 특정 국가 결혼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표집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자녀의 학습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일 것, 넷째, 다양한 학력 수준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표집할 것, 다섯째,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양하게 표집할 것, 여섯째, 한국어로 일반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경기도 다문화 관련 NGO 단체와 각국 이주민 커뮤니티 등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초등 저학년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지원을 받는다. 둘째, 지원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익명성 보장과 함께 개인정보와 인터뷰 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린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윤리적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 서명을 거친다. 경제적 형편과 가족 형태, 남편의 자녀 교육 관심 등 예민할 수 있는 사적인 질문에 대해 언제든 불이익 없이 그만둘 수 있다는 점과 불편한 인터뷰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인터뷰는 참여자당 2회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더 이상 새로운 맥락이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논문 작성의 추이에 따라 전화나 SNS, 이메일로 인터뷰를 보충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설문지로 진행하며 필요시 주제와 부합하는 부가적인 질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반구조화된 설문지는 Creswell (2005)이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을 반영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녀의 온라인 학습에 대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런 경험에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 위주의 질문 구성으로 참여자의 경험에 실제적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인터뷰 때는 질문의 공식적인 순서를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대해 편하게 서술하도록 하며 인터뷰 후 참가자의 언어적 표현 이외에도 비언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녹취하였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

월까지 참여자당 2~3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회 인터뷰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총 인터뷰 횟수는 22회로 총 41시간 45분에 해당하였다.

현상학 분석방법은 현상에 대한 주된 관심이 있는 그대로의 상세한 기술, 요약에 집중, 또는 그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에 있는지에 따라 분석방법을 달리한다.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7단계 분석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이 분석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인터뷰 자료 전체를 검토→중요한 진술 추출→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 진술로 변형→형성된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분류→주제를 포괄적으로 기술→주제 모음을 통해 핵심 주제 확인→연구결과 타당도 검증의 절차(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 확인,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해 연구 대상자의 경험 세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괄호치기(bracketing), 판단중지(에포케, epoche)를 통해서 오랜 기간 NGO 활동을 통해 갖고 있는(혹은 갖고 있을지 모르는) 본 연구자의 고정 관념과, 선입견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확인하여 현상학적 환원을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 10명은 30~50대 연령대의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참여자 10명 중 4명(참여자 1, 4, 5, 7)은 코로나 발발로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초등학생 2명 이상을 두었고 자녀가 갓 입학한 1학년 때 코로나를 겪은 참여자도 6명(참여자 1, 2, 5, 6, 7, 9)이나 되었다. 코로나 시기 전업주부인 참여자가 4명,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업 하고 있었던 경우는 6명이었다. 참여자 전원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했으나 필리핀 출신인 참여자 6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해서 사용했다.⁵

5 필자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 참여자 9와는 영어와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번	출신 국가	학력	한국 거주 기간	국적	자녀 수 (온라인수업 시작할 때 학년)	직업	자녀 온라인 학습 기기
참여자 1	중국	전문대 졸업	15년	한국	3명 (3살, 초 1, 초 5)	전업 주부	노트북
참여자 2	중국	대학 졸업	13년	한국	2명 (초 1, 초 4)	학원 강사	데스크탑
참여자 3	일본	전문대 졸업	18년	일본	1명 (초 3)	전업 주부	노트북
참여자 4	일본	고등학교 졸업	25년	한국	4명 (초 3, 초 4, 고 1, 대학 2)	회사원	노트북
참여자 5	일본	고등학교 졸업	15년	일본	2명 (초 1, 초 4)	전업 주부	노트북
참여자 6	필리핀	대학원 석사 수료	11년	한국	1명 (초 1)	학원 강사	태블릿
참여자 7	베트남	대학 중퇴 (현재 사이버대학 재학)	10년	한국	2명 (초 1, 초 4)	공무원	패드
참여자 8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 (현재 사이버대학 재학)	14년	한국	1명 (초 2)	회사원	데스크탑
참여자 9	태국	중학교 졸업	13년	한국	3명 (2살, 6살, 초 1)	자영업	학교 컴퓨터
참여자 10	캄보디아	고등학교 졸업	14년	한국	2명 (5살, 초 2)	프리랜서	노트북, 데스크탑

(1) 참여자 1(중국, 38세)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3명의 딸을 두었다. 첫째, 둘째는 중국에서 낳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국에서 살았다. 자녀 교육에 부부가 관심이 많아 집에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TV까지 없앴다. 코로나 기간에 밀가루 20kg을 사서 아이들과 만들기는 물론 요리까지 만들면서 아이들과 밀착된 시간을 보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온

라인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2) 참여자 2(중국, 43세)

경기도 한 도시에서 규모가 큰 중국어학원 부원장으로 있다.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 참여자 중 자녀들이 가장 많은 학원을 주말까지 가고 있었다. 코로나 기간에도 자신의 학원은 문을 열었고 아이의 학원도 거의 빠짐없이 보냈다. 학교도 열심히 찾아가 담임과 상담도 하고 아이의 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3) 참여자 3(일본, 51세)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칠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자녀의 온라인수업 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교적 자녀의 온라인수업을 상세히 지켜봤다. 전체적으로 온라인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특히 교사에 따라 수업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지적했다.

(4) 참여자 4(일본, 48세)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 4명을 두었다. 처음 온라인수업 때 대학생인 첫째가 초등 자녀들의 온라인수업을 많이 봐주었다.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혜택을 잘 챙기며 자녀들의 사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교육에 관심이 없어 자녀 교육을 혼자 전담하고 있다.

(5) 참여자 5(일본, 50세)

남편이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두 자녀 다 온라인수업 기간 내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원래부터 사교육에 관심이 없어 코로나 전에는 아무런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나 코로나 후 둘째 수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처음으로 둘째를 학습지와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두 아이 온라인수업을 지켜보면서 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부모의 시선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6) 참여자 6(필리핀, 38세)

필리핀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한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익숙해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진행했다. 남편과 주말 부부이고 주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아이의 온라인학습 기간 동안 고군분투를 했었다.

(7) 참여자 7(베트남, 34세)

베트남에서 사범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결혼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을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 비교적 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 선주민 한국인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며 경기도 한 도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사교육에는 큰 투자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과 남편이 번갈아가며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8) 참여자 8(베트남, 35세)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한국에 왔고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작문 실력으로 법조계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통역도 한다.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친구 같은 딸이 1명이 있다. 자녀의 온라인수업 때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알아서 해결했다. 한국어에 자신이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기에 주위의 베트남 여성들이 도움을 청하면 직접 가서 도움을 주곤 했다.

(9) 참여자 9(태국, 36세)

남편이 일하는 중 크게 다쳐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이며 산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 있고 치매가 덜한 시어머니가 아이 3명을 돌봐 주고 있다. 남편이 다쳤을 때 막내가 겨우 2살이었기에 아이들 교육보다는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급했다. 온라인수업 시기 큰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코로나 기간임에도 긴급 돌봄 교실을 다녔다.

(10) 참여자 10(캄보디아, 43세)

한국어 소통은 가능하지만 주로 짧은 단문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 온라인 학습 기기와 접속은 남편의 도움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의 딸이 아침에 씻지도 않고 잠옷 바람으로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하는 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다. 온라인 학습 때도 딸이 문제가 생기면 남편한테만 말을 해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4. 연구 내용

1) 알림장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온라인수업이라니

참여자 모두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지만⁶ 말하는 것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별개였다. 참여자 6, 7, 9, 10은 당시 온라인수업 진행에 큰 부담을 느꼈다. 특히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참여자 6과 돌봄 상황이 좋지 않은 참여자 9의 걱정이 컸다. 참여자 6은 필리핀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하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온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남편과 영어를 쓰고 직장에서도 주로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있다 보니 한국어 소통은 가능했으나 한국어로 된 글과 문서 등을 읽기 어려웠다. 아이가 한 명이며 이 아이가 초등학생 1학년 입학 앞두고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었기에 참여자 6의 한국 학교 경험이 전무했고 한글로 된 온라인수업 안내 알림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웠다. 당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다 보니 남편이 아이의 온라인수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참여자 10 또한 보통 때 자녀의 알림장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늦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학습은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에 디지털 기기 접근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졌었다.

6 몇몇 참여자는 처음으로 전화로 만났을 때 선주민 한국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했다.

“○○야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었어. 할 수 있어? 엄마는 몰라. ○○가 엄마 나 몰라. 어떡해 했어. 특히 e학습터 회원 가입하는 거부터 쉽지 않았어. 나는 주로 영어 사이트를 이용해, 한국 사이트를 이용 안 해. 이때부터 우리 딸이 엄마 믿으면 안 돼 했어.”(참여자 6, 2023년 2월 3일 1차 인터뷰 중).

“한국에 나 오래 살았어. 그래도 잘 몰라. 그런데 아빠 나이 많아 매매혼 커플들 있어. 아빠도 컴퓨터 몰라, 엄마도 몰라. 알림장 잘 몰라. 컴퓨터 수업 어떻게 할 수 있겠어.”(참여자 10, 2023년 2월 17일 1차 인터뷰 중).

온라인수업 기간에 영어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 줄로 알았던 엄마가 온라인 수업 시작부터 찢찢매자 엄마에 대한 기대가 깨진 참여자 6의 아이는 이때부터 엄마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잔소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 자신도 이때까지는 영어도 곧잘 배우며 잘 따라왔는데 온라인수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마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되자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엄마를 못 미더워하며 더 이상 영어를 배우려고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주말부로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참여자 6은 온라인수업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았다. 특히 참여자 6의 경우는 온라인 학습기로 태블릿을 사용했는데 이 태블릿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건이 있었다. 참여자 10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부가 컴퓨터를 아예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학습 시작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어 소통이 되는 자신도 알림장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결혼이주여성은 알림장은 물론 온라인학습 접근이 쉽겠냐고 본 연구자에게 반문했다.

특히 참여자 9의 환경이 열악했다. 급작스럽게 참여자 9의 남편이 회사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1년 넘게 입원해 있고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치매와 허리디스크로 급작스럽게 입원한 상태에서 혼자서 아이 3명을 돌보며 남편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와중에 큰아이의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었다.

“무슨 연락 계속 와. 무슨 내용인지 몰라. 나중에 친구가 (온라인수업한다고) 이야기해 줬어. 집에 컴퓨터도 없어. 사는 거 바빠 힘들어. 코로나 때 애들 학교 갔어. 집에 컴퓨터 없고 나도 모르는데 어떡해.”(참여자 9, 2022년 12월 23일 1차 인터뷰 중).

“엄마가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학교 가야 해 했어. 큰 애가 갔다 왔어. 친구들도 없어 안 간다고 했어. 엄마 몰라, 아빠 아파 그래서 가야 한다고 했어. 1학년이야. 생각이 있어. 그냥 갔어.”(참여자 9, 2022년 12월 23일 1차 인터뷰 중).

참여자 9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 두 분을 모시고 아이 셋을 낳고 키우고 하느라고 제대로 한글 공부를 못 해서 한국어를 말할 수는 있어도 읽기 쓰기는 어렵다.⁷ 그래서 알림장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남편까지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 아이들의 알림장과 과제도 지역센터에 다 맡기고 있었다. 참여자 9에게는 온라인수업이라고 해도 특별히 더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남편 간호와 생계 활동에 신경이 쓰이는 성가신 상황이었다. 참여자 9는 한국어를 단문으로만 말하는 것 말고는 디지털 문맹이었다. 이메일로 없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본 적도 없었다.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SNS로 소통을 하지만 그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결국 참여자 9의 아이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에 참여해 온라인수업을 참여했다. 참여자 9의 아이는 극소수의 아이들만 나오는 돌봄교실에서의 수업이 싫었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참여자 9는 자녀의 온라인학습 참여와 코로나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급박한 가정 환경에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틈틈이 일을 가야 하는 처지에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것과 끼니 챙기기가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였다.

7 참여자 9는 얼굴을 보면서 한국어로 짧게 대화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약속을 잡거나, 인터뷰를 보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경우 소통이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참여자 9는 자녀의 답임과도 전화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 답임이 아이에게 직접 온라인수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돌봄교실 안내를 하였다.

2) 누군가에게는 쉬운 or 쉽지 않은 과정

비교적 엄마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경우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중국 출신 동포들은 온라인수업 접근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아이들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남편이나, 같은 처지에 놓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이런 부분에 능숙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대부분 해결했다. 그러나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석을 하거나 직접 선생님에게 탭이나 노트북을 들고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저는 회원 가입 쉽게 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한국 온라인 쇼핑물 이용하면서 가입해 봤어요. 그래서 다들 나처럼 하는 가 보다 했는데 온라인수업 시작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일하러 나간 엄마들이 아이가 온라인수업에 안 된다고 하니깐 저한테 집에 가서 봐달라고 전화한 거예요.”(참여자 8, 2023년 2월 10일 1차 인터뷰 중).

“큰애는 이미 고학년이니까 선생님이 뭔가 알람을 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그냥 어디로 알아서 들어갔어요. 작은 애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도와주고 후에 다 자기 알아서 들어갔어요. 모르는 것은 형이 좀 도와주고, 회원 가입하고 인증하고 그런 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참여자 2, 2022년 12월 5일 1차 인터뷰 중).

참여자 2와 8을 비롯한 6명은 온라인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구비와 연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첫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학교에서 알려주는 공지나 그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와 컴퓨터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했으나 온라인수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아는 지인이 자기는 출근했는데 아이가 온라인수업 출석을 못 한다고 해

서 그 집에 직접 갔어요. 맞벌이 부부라 부부가 출근하고 나서 뭐가 안 되니깐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한 거죠. 가 보니깐 이거저거 아이가 만져서 아이디어가 저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참여자 8, 2023년 2월 18일 2차 인터뷰 중).

“그때 아빠 없었어.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 회원 가입은 어떻게 했어. 근데 안 됐어. 암만해도 자꾸 끊겨서 나중에 남편 와서 했어. 컴퓨터가 오래됐어. 그래서 남편이 컴퓨터를 바꿨어. 남편이 몇 번 알려줬어. 나중엔 자기가 알아서 했어.”(참여자 10, 2022년 2월 17일 1차 인터뷰 중).

참여자 8은 베트남 공동체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는 여성으로 알려져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시절이 본인인 재택근무를 하는 시기라 참여자 8을 지인들 가정을 방문해 가며 아이들을 도왔고 결혼이주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수업에 자신의 자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아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대해 전해주었다.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한 여성들도 있어요.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지도 못해요. 베트남에서 안 해보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걸 배울 길이 없어요. 좀 챙피한데... 남부 쪽으로 가면 완전 시골이에요. 거기서 자라고 한국 왔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와서라도 배우면 되는데... 남편이 허락 안 해줘서 한글도 배우러 못 다니는데 컴퓨터를 배우기는 더 힘들죠.”(참여자 8, 2023년 2월 18일 2차 인터뷰 중).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은 디지털 사회인 한국에서 디지털 격차를 가져오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장성수·이정환 2023). 한국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접근 용이성은 디지털 정보화를 기반으로 전환되어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이주민들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가져오고 이런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문화적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김세현·이혜수 2019; 장영은 2024). 이런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디지털 리터러시아는 온라인수업에서 저학년 자녀들의 학습권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온라인학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교나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온라인수업 초반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얼마나 컴퓨터 접근할 수 있는가가 자녀의 온라인수업의 질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집집마다 차이가 나는 스마트 기기

집에 아예 컴퓨터가 없어 아이를 학교로 보낸 참여자 9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있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구입하여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히 나빠진 경제 사정이 부담이 되는 가정은 대여와 있는 기기 사용으로 온라인수업에 참여했지만 스마트 기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집은 큰 고민 없이 구입해서 아이의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학교에서)대여할 수 있었어요. 주위에서 대여해서 쓰는 엄마들 있었어요. 저희는 좀 썩 거라도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마트 같은 거 가면은 온라인 수업용으로 20만 원 될 정도로 구입이 가능했어요. 주변 엄마들이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이 낫다고 해서… 대부분 노트북을 구매하던데요.”(참여자 1, 2022년 11월 29일 2차 인터뷰 중).

그러나 스마트 기기에는 스마트폰도 포함이 되었는데 저학년이라 아이의 스마트폰이 아닌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6과 7이 그런 경우였다. 아이는 2명이고 집에 컴퓨터는 한 대뿐이라 아이가 수업하는 경우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했다. 참여자 6의 경우는 학습지를 하면서 무료로 받은 태블릿을 사용했는데 이 태블릿이 마이크 기능이 없어 아이가 수업 중 발표해야 할 때는 할 수 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동원해야 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1학년)는 내 핸드폰으로 했어요. 근데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도 처음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하니깐 적응도 못 하는데 핸드폰 화면이 작으니 집중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태블릿을 하나 구입했고… 써보니깐 그것도 불편해서 다시 노트북으로 바꾸었어요.”⁸
(참여자 7, 2023년 2월 6일 1차 인터뷰 중).

“학습지 태블릿 안 좋아. 학습지 2년 하면 태블릿 우리꺼 된다고 해서 받은 건데…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일주일 결석했어. 남편 없었어. 내가 해결 못하니깐 ○○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설명을 들어도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 선생님이 학교로 오라고 했어. 그래서 태블릿 들고 학교 갔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어. 근데 이게 마이크가 안 돼.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줌으로 학교 수업 들어가. 그래서 ○○는 줌 수업에 2개 들어가 있어. 나도 줌수업 시간 옆에 있어야 해. 발표할 때나 내 핸드폰 보고 말하고 하니깐 선생님이 내 딸보고 ‘○○야! 어디 보는 거야?’ 했어.”(참여자 6, 2022년 2월 12일 2차 인터뷰 중).

참여자 6도 이런 수업 방법이 힘들어 새로 태블릿을 살까 고민 했었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선뜻 경제적 지출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참여자 2의 경우는 온라인수업을 위해 초등 4학년이었던 큰 아이는 노트북을 구입하고 1학년이었던 작은 아이는 자신의 서재방 데스크탑에서 온라인수업을 진행했는데 맞벌이 부부이고 저학년인 아이의 수업 태도가 걱정되어 그 방에 CCTV까지 설치했다.

“처음에는 자기 방에서 수업했어요. 나는 일하러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 서재 있어서 거기서 수업하게 했어요. 방보다는 수업하는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맞춰 제가 깨울거나 챙길 수가 없어서 거기 CCTV도 달았

8 태블릿 같은 경우는 노트북보다는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에 참여하기가 불편하다. 작은 화면에 마우스가 아닌 손가락으로 조작해야 하는 태블릿 경우에는 저학년생들이 온라인수업에 사용하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요. 내가 학원에서 CCTV 봐서 수업 안 들어가면 바로 연락하고 했어요.”(참여자 2, 2022년 12월 5일 1차 인터뷰 중).

참여자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구비와 종류가 다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아니지만 참여자 10과 친한 친구는 아이가 2명인데 오래된 데스크탑이 고장이 나자 스마트 기기는 부모의 스마트폰 하나고 대여도 바로 못 해서 얼마 동안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수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집 아이들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사달라고 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대출도 많아져 시줄 수 없었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학습에 무리가 없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춘 경우 기기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핸드폰과 단순한 학습지 수업만을 할 수 있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석이나 부분 참여 등 학습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통계청 2022)에 의하면 온라인수업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하 집단 학생들이 낡은 기기로 수업에 방해받았던 적이 있다는 비율이 29.3%로 다른 중집단이나 상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디지털 기기가 낡았거나 성능이 떨어져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되면 이는 학습 의욕과 학습효과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가 온라인학습에 영향을 주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에 컴퓨터도 없고 남편의 사고로 온라인수업을 챙길 여력이 없었던 참여자 9의 아이는 학교의 ‘긴급 돌봄교실’을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몇몇 아이만 나오거나 나온 아이들끼리도 제한된 접촉을 해야 했던 참여자 9의 아이는 왜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학교를 가야 하나요 하고 가기 싫다고 해서 참여자 9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무너지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뚜렷한 계층화가 나타났고 이는 다문화가정 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더해져 더 심한 학업 계층화가 나타났다.

4) 집안 형편이 비칠까 신경 쓰이는 카메라 위치

참여자의 경제적 사정은 앞에서 기술한 스마트 기기의 구비 차이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의 카메라 방향까지 신경을 쓰게 했다. 처음부터 신경이 쓰인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의 사양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접속이 힘들거나 렉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의 줌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불안해서 수업 매시간 아이와 함께 수업 화면에 안 보이게 참여하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가정 형편을 카메라 뒤편으로 보면서 자신의 집이 아이의 카메라에 어떻게 잡혀 보일지를 걱정한 것이다.

“집이 좁아서... 시는 거 보여주기 싫었어요. 처음에 카메라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가끔 보니까 다른 아이들 집이 너무 좋아요. 뒤에 큰 소파도 있고 그림도 있고... 집이 넓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벽 보이게 하고 아이보고 수업하라고 했어요.”(참여자 3, 2022년 12월 19일 1차 인터뷰 중).

“신경 쓰였어요. 다른 애들 집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아이 방에서 하는 데 카메라 뒤에 옷 걸어 둔 거랑 지저분한 게 보이니까... 아이 카메라를 조금 돌렸어요. 아이는 몰라요.”(참여자 5, 2023년 1월 23일 2차 인터뷰 중).

특히 참여자 4는 3, 4학년 연년생 자녀들이 동시에 수업에 들어가자, 하나뿐인 방에서 떨어져 수업을 하게 했는데 서로의 수업에 방해가 되어 동생을 거실로 내보내서 수업을 받게 했다. 거실이 부엌과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 부엌이나 거실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소파도 못 놓는 좁은 거실과 이어진 부엌이 카메라에 잡힐까 봐 고민 끝에 TV를 등지고 밥상을 펴서 수업을 시켰다고 한다. 공부하는 아이의 뒷 배경이 검게 나오도록 말이다.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 흐리게 해놓을 수도 있었지만… 아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 또 또 보이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줌 수업하는 시간대가 조금 다르면 괜찮았었는데 동시에 학교 선생님과 해야 되니까… 같은 방에서 못하고 방이 좁으니까 한 사람은 거실에 나가서 하고 한 사람은 방에서 하고 그렇게 수업했어요.”(참여자 4, 2023년 1월 16일 2차 인터뷰 중).

처음에는 온라인수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기기 확인에만 신경을 썼는데 줌 수업 때 다른 아이들의 집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이 카메라에 잡힐까 봐 신경이 쓰였다. 아이가 2명 이상이고 아이가 자기 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 명은 방에서 다른 한 명은 거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저학년 아이들은 다른 친구의 카메라 뒷배경까지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온라인수업을 도와주기 위해 카메라 비껴 앉은 엄마들이 오히려 카메라 너머의 뒷배경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에 경제적 상황이 나은 참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이들끼리 수업 시간이 같은 경우 오디오가 겹치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뚝뚝 떨어뜨려 놓고 수업을 받게 했다.

5) 쪽쪽 앞으로만 나가는 진도

한국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개학에 1학년 입학한 자녀를 둔 참여자는 참여자 1, 2, 5, 6, 7, 9이었다. 참여자 1, 5, 7은 따로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지 않아도 유치원에서 혹은 집에서 위의 형, 누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고 두 자릿 수 덧셈과 뺄셈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6의 경우는 달랐다. 조기 교육에 반감이 많은 참여자 6은 아이가 학교 가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필리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아이를 볼 때 학교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학이 늦어지고 4월에 들어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자 매우 당황했다.

“학교에서 가나다라 배우잖아. 그런데 잘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 다시 안 돌아가. 우리 딸은 엄마 어떡해, 어떡해만 했어. 수학도 너무 어려웠어. ○○은 겨우 1+1 이런 거 하는데 두 자릿수 문제를 푸니깐. 나중에 남편하고 내가 딸에게 말했어. 우리가 미안하다고.”(참여자 6, 2023년 2월 12일 2차 인터뷰 중).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중도가 아무래도... 그냥 확 지나가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러다가 진짜 학습 능력이 차이가 나겠다 그런 건 좀 느꼈어요. 집중을 계속 잘할 수 있는 아이는 괜찮지만 온라인을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은 좀 어렵겠다...”(참여자 4, 2023년 1월 16일 2차 인터뷰 중).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흥미 감소와 학습 부진은 아이들의 학력 수준으로 이어졌다. 모든 아이가 내 아이와 비슷하겠지 생각했지만 등교를 해서 학교를 가는 날이 생기자 아이들 사이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 6과 7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도나 피아노 외에는 다른 학습지나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 이때 생긴 학습 격차로 참여자 6은 지역의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방문교사⁹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학 성적은 신통찮다. 참여자 7은 남편이 코로나 후 공부에 관심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격차를 줄이고 따라잡을 수 있었다. 비교적 사교육을 많이 시켰고 현재에도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참여자 2도 자녀들의 온라인수업 현장을 보고 나서는 너무 실망해서 더욱 사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애들 수업 보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온라인 수업 끝나면 둘 다 바로 학원 보냈어요. 큰 애(4학년)도 다니던 학원 계속 다니게 했고 작은

9 다문화가정방문교사는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주로 초등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의 예절과 문화 등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을 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나 과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에(1학년)도 학원 3개 보냈어요. 코로나라도 다 학원 갔어요. 학원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으면 계속했어요. 주위에서 다 그렇게 보냈던데요. 학원에서도 꼼꼼하게 관리했지요.”(참여자2, 2022년 12월 12일 2차 인터뷰 중).

“제 아이는 원래 한글 공부나 그런 것도 늦은 편이어서... 거기다 3학년 때는 거의 공부했다고 할 수 없고요. 근데 4학년 선생님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이 성적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온라인 학습 기간을 잃어버린 1년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애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옆에서 보니까 그제(온라인수업) 수업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오히려 궁금했어요.”(참여자3, 2022년 12월 19일 1차 인터뷰 중).

참여자 2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자 2의 집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살기에 다른 아이들의 사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아이들이 줌 수업에 신체 일부분만 나오게 카메라를 잡아두고 선생님만 진도를 쪽쪽 나가는 수업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다. 다른 참여자들이 코로나 기간에는 어쩔 수 없다, 라며 아이를 밖에 내보지 않고 있는 기간에도 참여자 2는 자녀를 학원에 보냈다. 서재에 달았던 CCTV를 통해 믿었던 자신의 아이 또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교육에 더욱 매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에도 참여자 2는 주말을 포함해 사교육을 7개나 시키고 있다.

참여자 3 또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아이라 한글도 늦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글도, 수학도 더 격차가 심해졌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아이의 문제로 여겼다. 그러나 3학년이었던 아이가 4학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수학 성적 보고 놀랐다는 말을 하자 그 말에 더 놀랐다고 한다. 교사가 그 기간을 ‘잃어버린 1년’이라고 표현해 놓고는 왜 우리 아이 성적이 놀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후에도 참여자 3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바우처로 학습지를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한글을 떼지 못하고 입학을 해서 초등 1학년부터 학습에 차이가 났던 참여자 3의 자녀는 온라인학습을 계기로 큰 학습 격차가 생겼고 이후 완전히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을 늘린 학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통계청(2022)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온라인학습으로 불안감을 느낀 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온라인학습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해소하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모들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사교육비를 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참여자 3의 경우처럼 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다른 아이들 또한 그럴 것이라는 예상이 학년이 바뀌면서 그렇지 않음을 실감한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었고 부모의 경제력이 코로나 시기의 부족한 학습량을 메어줄 능력이 되는 경우는 코로나 시기의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 10명 중 자녀 교육에 관심도 많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가정은 참여자 2, 7, 8, 10 정도였고 나머지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었다. 결국 온라인수업은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교육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격차는 저학년 아이의 학습 흥미에 큰 영향을 끼쳐 몇몇 아이들은 수학 과목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학교 다시 가기 시작했어. 우리 딸 수학 빵점 맞았어.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아는 사람 부탁했어. 우리 딸 수학 좀 봐달라고. 내가 그 집 아이 영어 봐주기로 하고.”(참여자 6, 2023년 2월 3일 1차 인터뷰 중).

“원래 학원, 학습지 안 시켰어요. 다문화가정에 나오는 바우처로 그때쯤 시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선생님 오면 코로나 (감염)걱정된다고 해서 안 시켰는데… 다시 학교 가면서 바우처로 처음으로 눈높이 수학시켰어요. 수학을 많이 못해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수학 안 돼요.”(참여자 5, 2023년 1월 23일 2차 인터뷰 중).

참여자 6처럼 주위에 도움을 청해 1주일에 한 번 부족한 과목의 사교육을 받

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 벌어진 수학 격차를 조금씩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참여자 3, 4, 5의 자녀처럼 부모가 동원할 수 있는 사교육인 학습지와 큰 형제의 학습 보조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어차피 줌 때 배웠던 내용들 다 엄청 쉬운 거잖아요. 한글 수학 조금만 그러니까 다 깨우치지 않아도 절반 정도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하는 거여서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애는 수업도 놀이처럼 생각하고 엄청 설레게 수업을 참여했어요. 수업 끝나고 밖을 못 나가니깐 언니가 EBS 선쌤 흥내 내면서 가르치며 놀고 했어요.”(참여자 1, 2022년 11월 21일 1차 인터뷰 중).

대면 수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교육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더 나고 사교육을 놓치지 않고 했던 아이들은 학습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참여자 1의 경우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학습지 하나 시키지 않았다. ‘집에서는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아이들에게 이를 만큼 공부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고 아이가 아이답게 노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집에는 TV도 없고 핸드폰도 하루 정해진 시간 30분만 한다. 온라인 개학 시절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5학년 언니가 심심해하자 첫째가 e학습터 영상의 선생님 흥내를 내며 첫째를 가르쳐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어도 학습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6) 아무리 온라인수업이라고 해도

코로나 사태에서 무력해진 공교육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3차레나 연기된 개학이 온라인으로라도 개학을 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바깥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서만 생활하며 지나치게 게임과 SNS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화면으로나마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앞둔 참여

자 6명(1, 2, 5, 6, 7, 9) 중 아빠의 산재로 집 안이 뒤숭숭한 참여자 9만 빼고 나머지는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이 알게 되고 소속감을 생긴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한 입학식과 개학이 반가웠다.

“알림이도 두 번 오고 선생님이 전화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좀 놀랐어요. 이런 지원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대처도 만족스러웠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학교 측에서도 미디어 기기까지 다 준비를 해줬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건 엄청 인상깊어요.”(참여자 1, 2022년 11월 29일 2차 인터뷰 중).

“몰입감은 좀 떨어지죠. 줌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족해요. 애들 개학을 무제한으로 늦출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학교와 연대 고리가 생기니까. 그래도 애가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에 입학했구나 실감도 좀 들고, 아니면 그냥 만약에 반년 동안 입학을 연기했다라면 아이도 마음이 좀 더 초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7, 2023년 2월 6일 1차 인터뷰 중).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아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 반대 반이었지만 막상 온라인수업이 진행되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업이었다. 어린 자녀들의 학교 수업으로 인해 온라인수업 형태를 처음 경험한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¹⁰ 초기에 온라인으로나마 개학을 해서 다행이었다 싶었던 참여자들은 온라인수업이 1학기를 넘어 2학기에도 진행이 되자 온라인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제가 집에 있는 날 수업 화면을 선생님 안 보이게 옆에서 보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이마 위로만 보이도록) 있는 거예요. 반 친구들 다 그랬어요. 학원 온라인

10 참여자 2와 7은 학원 강사로 회사의 업무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수업과 온라인 회의를 접하고 있었지만 다른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뿐만 아니라 회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에서도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냥 수업 하세요.”(참여자 2, 2022년 12월 18일 3차 인터뷰 중).

“다른 반 선생님은 아이들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체크한다는 말 들었어요. 선생님이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머리띠를 바꿔 써서 아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반 선생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참여자 8, 2022년 2월 18일 2차 인터뷰 중).

참여자 2는 자신의 아이와 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마 위의 모습이 나오도록 카메라를 잡는 것에 놀랐고 그걸 그냥 방관하는 교사의 모습에 한 번 더 놀랐다고 한다.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하니깐 반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깐 자기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따라 그랬다고 한다. 학원에서도 몇몇 아이들이 이러면 주의를 주는데 전체 반이 이렇게 되도록 어쩔 교사가 아무 말도 안 할까 싶었다고 한다. 참여자 8은 출신국 커뮤니티에서 들은 말이 많았다. 자신의 아이 선생님에 대해 평가를 하지는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신의 아이 선생님과과는 다르게 다른 선생님들은 동영상도 재미있게 제작해서 올리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소품까지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엄마를 통해 들었다. 힘든 상황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선생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아이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줌 수업보다는 e학습터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다. 초기 접속과 영상 재생의 문제도 있었지만 온라인수업에 익숙해지면서 학습에 내용과 질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줌은 좀 나았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는 아이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특별히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배워야 되는 지도 모르고... 동영상 자체도 직접 교육적으로 만든 거 아니라 대충 있는 걸 어디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 아깝게...”(참여자 3, 2023년 1월 26일 2차 인터뷰 중).

코로나 전부터 사교육에 관심이 없어 아이에게 사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는 참여자 3이지만 참여자 3의 눈으로 보아도 1학기 때 주를 이루었던 e학습터를 통한 수업은 뭘 배우는지도 모르는 시간 아까운 수업이었다. 또한, 참여자 6은 온라인의 일방적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앞에서 학습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탭으로 온라인수업에서 애를 먹었고 한글이나, 수학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참여자 6의 아이는 온라인학습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주말에 오는 아빠는 아이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참여자 6은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기에는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했다.

“나중엔 (숙제) 하지마 하지마 했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줘? 아이 몰라, 엄마 몰라, 아빠 없어 어떡해?... 나도 만약에 학생이 되면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너무 재미없다 정말 재미없다. 차라리 우리에게 학습지를 줘. 차라리 학습지를 할게. 그제 나아.”(참여자 6, 2023년 2월 19일 3차 인터뷰 중).

참여자 6은 필리핀에서 대학원을 다닌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으로 코로나 시기에 진행되었던 온라인수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에게 시키는 학습지보다도 못하는 수업이었다고.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해 아이의 탭을 통해 수업 시작을 도와준 교사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교육의 질과 효과에 대해서는 ‘학습지’보다 못한 내용이었고 ‘학습지 교사’보다 무성의한 선생님이었다고 평했다. 대한민국 교육 사상 초유로 온라인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대략 1년의 교육을 참여자는 6은 이렇게 정리했다. “시간 아까워. 책도 새 거 그대로고.”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코로나 온라인수업이 1, 2학기 교사들의 주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를 비교하는 분위기’였다. 1학기 74.2%, 2학기 75.9%로 전체 어려움 중 2위를 차지했고 1학기보다는 2학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들의 비교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온라인수업에 대한 불만이 교사와 교사의 비교로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 듯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을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림장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온라인수업이라니’이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으로 자녀 알림장의 내용도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은 온라인수업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온라인학습 준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거나 집안 사정으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누군가에게는 쉬운 or 쉽지 않은 과정’이다. 비교적 엄마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경우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중국 출신 동포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수업에서 저학년 자녀들의 학습권으로 연결되어 자녀들의 온라인학습 접근과 질에 영향을 끼쳤다.

셋째, ‘집집마다 차이가 나는 스마트 기기’이다. 참여자들의 자녀들의 스마트 기기의 구비와 종류는 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뚜렷한 계층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녀들의 학습 흥미도와 학습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넷째, ‘집안 형편이 비칠까 신경 쓰이는 카메라 위치’이다. 참여자 중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줌수업에서 자신의 집이 아이의 카메라에 어떻게 잡혀 보일지를 걱정했다.

다섯째, ‘쭉쭉 앞으로만 나가는 진도’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교육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과 온라인학습으로 벌어진 격차를 사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특히 코로나 이후 큰 격차를 실감했다.

여섯째, ‘아무리 온라인수업이라고 해도’이다. 온라인으로 2학기까지 수업이 진행되자 참여자들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교사의 방관 수업을 목도한 경우와 다른 교사들과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본 연구로 도출된 위 결과들을 분석하면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녀의 온라인 학습 참여와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¹¹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일본, 중국(한국계) 출신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녀의 온라인학습 접근과 지도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자녀의 온라인학습 참여에 문제가 없었다고 학습 격차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참여자는 어학 학원을 운영하는 참여자 2뿐이었다. 나머지 참여자 모두 자녀들의 사교육에 관심이 없었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저학년 자녀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비교적 학력이 높은 참여자 1, 7, 8은 코로나 이후 학습 격차를 줄일 방법과 도움을 강구했고 이런 노력은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했다.

결국 결혼 중개업체나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참여자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코로나 이후 부족한 자녀 공부를 메꿀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반면 고학력 참여자들은¹² 코로나 이후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직접 나서거나 사교육을 동원한 것을 볼 수 있었다.¹³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계층별 학력 격차를 유지 또는 강화했다는 이시효(2020)의 연구와 일반 학생들의 코로나 시기 학습 격차를 연구한 최성광·최미정(2022),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습 격차를 연구한 강호수·남신동(2020) 등의 연구와 같은 결과임을 볼 수 있다. 일반가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 온라인학습으로 인해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생긴 시간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들이 사교육에 더 집중하면서 부익부

11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컴퓨터 사용에 아주 능했지만, 자국의 지인들과 커뮤니티 연락을 받아 참여자 6이 여기저기 도움을 주었고 이런 도움의 내용들이 베트남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아주 흔하게 돌아다녔다고 한다.

12 본 연구의 참여자 중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가정들 대부분은 결혼 중개업체나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 대부분은 자유 연애로 결혼한 특징이 있었다.

13 참여자 6의 경우 필리핀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하고 한국으로 온 참여자 중에서 가장 고학력이지만 코로나 이후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는 참여자 6이 모든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며 주말부부로 남편을 조력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빈익빈 현상으로 더 큰 학습 격차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고향이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참여자들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학습으로 벌어진 자녀의 학습 격차를 부모의 가르침으로 혹은 사교육으로 메꿀 수 있었다.

2020년 교육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전국 단위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면서 시작한 온라인학습에 교육 당국도 한국 사회도 이 수업의 사각지대를 살필 여력이 없었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한국 생활 적응이 자녀의 출생, 양육·교육과 맞물려 있기에 가족, 이웃,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온라인수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친하거나 맘 편히 도움을 받을 내국인이 없는 28.2%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자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자녀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온라인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온라인수업에서 학습 약자를 더 이상 약자인 채로 놓아두지 않고 학습의 주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새로운 학습 형태인 온라인수업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이면서 소수자들의 학부모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귀화자를 위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모색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한 온라인학습은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초등 저학년 자녀에게 온라인수업 지도를 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접근을 어렵게 했고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 격차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는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중 사회통합프로그램 15개 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살펴본 결과 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

이기에 많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를 교육하고 있지는 않았고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도 결혼이주여성의 뉴스나 방송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SNS 접근과 활용 등이 대부분이었다.¹⁴ 이는 더 이상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국가적 비상 상황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연구 결과, 코로나19 시기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차이가 자녀의 학습 격차로 이어졌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소수자 가정의 학습 격차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 대미문의 상황으로 허둥거렸던 코로나19 시기였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온라인수업에서 학습 약자를 더 이상 약자인 채로 놓아두지 않고 학습의 주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학습 환경 개선의 필요성 제시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결혼이주여성 개개인 특성과 함께 그들의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접근이 될 것이다. 온라인수업 과

14 인터넷 검색(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찾아본 결과 2021년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학습과 기사콘텐츠 체험을 위해 기획된 '화성시 다문화 이주여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020년 무안가족센터에서 2023년 오산가족센터의 '무안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자녀의 온라인학습 접근에 필요한 본 연구와 관련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2023년 오산시 가족센터의 초등·고학년 자녀를 둔 오산시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리 아이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기르기(고학년편)>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 수업 환경, 교사 역량 등의 차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과 같은 비상시기에 빠른 변화 속에 놓인 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문화복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한국 사회의 소수자이면서 학습 약자의 학부모인 결혼이민자·귀화자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도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본 연구와 같이 초등 저학년을 둔 결혼이주여성에게 포커스를 맞춘 연구 외에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학부모의 역할과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가 자녀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는 필수적이다. 기존의 학습 약자였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에 수업을 포기하는 ‘온포자’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교신: 정선주(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시간강사)(wjd711120@naver.com)

Correspondence: Sun Joo Jung(A Part-time Instructor, Dept. European Culture, Chungang University)(wjd711120@naver.com)

2025.01.16 접수, 2025.01.24. 심사, 2025.04.1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명선·양성은, 2011,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33-250.
- 강선자·손수민,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4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61-188.
- 강호수·남신동, 2020,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속, 학습격차의 확대 재생산: 경기도 학생·학부모 대상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46, 180-193.

- 경기일보, 2020.04.26, 다문화 학생들 온라인 강의 어려움 크다,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531>.
- 김강남, 2021, 코로나 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15(1), 118-142.
- 김성숙, 2012,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2(2), 241-265.
- 김세현·이혜수, 2019,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한국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 19-43.
- 김유진·오성배, 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135-160.
- 남호웅, 2021, 원격수업에 대한 다문화 학생의 인식과 개선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 2011,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과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5-27.
- 박미희, 2020,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73-101.
- 박진보, 2020, 팬데믹 초등 교육과정 제안, 교육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토론회II자료집, 18-33.
- 서덕희,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 어려움에 대한 중단적 사례연구: 학력에 따른 아버투스와 문화 접변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 211-247.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 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2021-1 현안분석 보고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손지희, 2020, 팬데믹 시기,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중학교, 교육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토론회 II자료집, 34-45.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연합뉴스, 2020.10.09, “카톡 못 읽어 숙제 못 해요” 다문화가정은 온라인수업 ‘사각’,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200600004>.
- 윤명숙·이해경, 2011,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6), 103-135.
- 이시효, 2020,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4), 172-207.
- 이현주, 2013, 한 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장성수·이정환, 2023, 결혼이주민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1(2),

- 176-194.
- 장영은, 2024,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변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SHSC)*, 6(4), 355-366.
- 전홍주 외,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이주 특성과 이민 생활 적응 출신 국가 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8-103.
- 정형수·양정호, 2023, 코로나19 시기 초등학생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33(2), 33-63.
- 중부일보, 2021.01.16, 한국어도 서툰데 원격수업...다문화 학생들 '발 동동',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21951>.
- 천보선, 2020, 팬데믹 상황 속 비상체제로서 '핵심교육과정' 운영, 교육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토론회II자료집, 5-17.
- 최성광·최미정, 2022, 코로나-19 유행 시기 신규 보건교사의 교직 적응에 대한 FGI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6), 317-326.
- 최혜영, 2020, 온라인 수업 단상, 교육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토론회II자료집, 59-67.
-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팜티훙짱 외,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 *교육문화연구*, 20(4), 137-16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S. and King, M.(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Creswell, J. W., 2009, Mapping the field of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3(2), 95-108.
- Dorn, E. et al., 2020, COVID-19 and student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hurt could last a lifetime. McKinsey & Company, 1.
- EBS 뉴스, 2020.04.17, 원격수업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지원 역부족, <https://mid.ebs.co.kr/book/edu/ebsnews/view?encodingSeq=20267886>.
- KPI뉴스, 2020.04.09, 온라인 개학...한국어 부족한 다문화 아동들엔 '산 넘어 산', <https://www.kpinews.kr/newsView/17954613635053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s Children During COVID-19: Focusing on Marriage Migrant Women in Gyeonggi Province

Sun Joo Jung*

Abstract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into how marriage migrant women experienced their children's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research focused on ten marriage migrant women with yo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exploring the challenges they faced in supporting their children's online education and the essence of their experiences.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se women were primarily due to their limited digital literacy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hich exacerbated their children's learning disparities. The study's findings a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emes: "Not knowing what's written in the notice, yet having to navigate online classes," "An easy or difficult proces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Different smart devices for each household," "Concern about the family's financial situation being visible through the camera," "Rapid progress with no chance to catch up," and "Even though it's online learning."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marginaliz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ir experiences in preparation for future crises.

Keywords Marriage Migrant Women, COVID-19, Online Learning, Digital Literacy, Children's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ies, Learning Disparities

* Chungang University, Dept. European Culture, A Part-time Instructor, wjd711120@naver.com